

2021년 2/4분기

기업경기전망 보고서

2021. 03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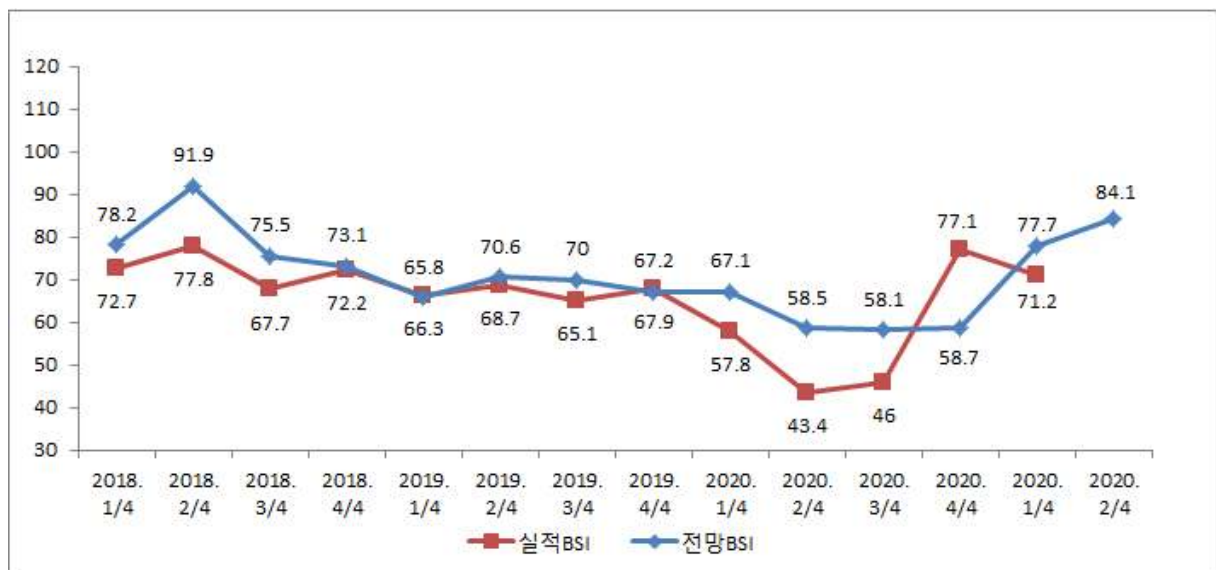
I. 경기전망(BSI)

본 상공회의소 지역 내에 소재하는 1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「2021년 2/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」에 따르면 2021년 2/4분기 기업 경기전망실사지수(BSI)는 전분기(77.7) 대비 6.4포인트 상승한 84.1로 조사되었다. 여전히 기준치(100)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지난 분기에 이어 지역경기가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와 국내 백신접종개시에 따른 코로나19 사태 종식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제조산업의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. 지역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은 신차효과 및 해외 수출증가 등 완성차 업계의 판매호조에 따라 경기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내수부진 지속과 함께 금리 및 환율 변동 등 대내·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.

한편, 2021년 1/4분기 BSI 실적치는 지난 분기 77.1포인트 대비 5.9포인트 감소한 71.2포인트로 집계되며 지역기업들의 실적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<경산 · 청도지역 경기전망 B.S.I 추이>



구분 BSI	2018년				2019년				2020년				2021년	
	1/4	2/4	3/4	4/4	1/4	2/4	3/4	4/4	1/4	2/4	3/4	4/4	1/4	2/4
전망 BSI	78	92	76	73	66	71	70	67	67	58	58	58	77.7	84.1
실적 BIS	73	78	68	72	66	69	65	68	58	43	46	77.1	71.2	

◆ BSI(Business Survey Index)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~200 사이로 표시되며,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, 100미만이면 그 반대이다.

주요 업종별 2/4분기 전망 BSI는 기계·금속업종이 89.1, 섬유 61.8, 화학·플라스틱 58.8, 기타 업종이 56.4로 나타나 전체 업종에서 기준치(100)를 하회하였다.

주요 부문별 2/4분기 경기 동향을 살펴보면, 매출액은 78.2, 영업이익은 64.8, 설비투자가 91.9, 자금 조달여건은 62.4로 나타나 전체 부문에서 기준치(100)를 하회하였다.

<주요 업종별 · 부문별 B.S.I>

항 목	분 기	2021년	2021년
		1/4분기 실적	2/4분기 전망
업 종 별	전 제조업	71.2	84.1
	기계·금속	89.1	92.5
	섬 유	61.8	70.8
	화학·플라스틱	58.8	62.3
	기 타	56.4	77.6
부 문 별	체 감 경 기	71.2	84.1
	매출액	67.3	78.2
	영업이익	53.8	64.8
	설비투자	80.8	91.9
	자금 조달여건	57.7	62.4

Ⅱ. 기업경영 핵심변수 및 정책과제

① 올해 귀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외 리스크는? (복수선택)

	백분율
미중 무역갈등 포함한 보호무역주의	14.9%
신흥국 경기침체	16.4%
유가상승	25.4%
환율변동성	19.4%
북한 이슈	0.0%
기 타	23.9%
합 계	100%

☞ ‘유가상승’이 25.4%, ‘기타’가 23.9%, ‘환율변동성’이 19.4%, ‘신흥국 경기침체’가 16.4%, ‘미중 무역갈등 포함한 보호무역주의’가 14.9%, ‘북한 이슈’가 0% 순으로 조사되었다.

② 올해 귀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 리스크는? (복수선택)

	백분율
코로나 재유행	53.4%
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국내 금리인상 가능성	8.2%
가계부채 증가	12.3%
기업부담법안 입법	19.2%
반기업 정서	5.5%
기 타	1.4%
합 계	100%

☞ ‘코로나 재유행’이 53.4%, ‘기업부담법안 입법’이 19.2%, ‘가계부채 증가’가 12.3%, ‘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국내 금리인상 가능성’이 8.2%, ‘반기업 정서’가 5.5%, ‘기타’가 1.4% 순으로 조사되었다.

③ 코로나19가 경제·산업·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?

	보 기	백분율
국내 4차산업혁명·디지털 전환의 속도가	더 빨라졌음	62.2%
	변화 없음	33.3%
	더 느려짐	4.5%
선진국과 우리기업 간 기술격차가	더 커졌음	41.9%
	변화 없음	51.1%
	더 줄었음	7.0%
중국 등 신흥국의 기술 추격속도가	더 빨라졌음	60.5%
	변화 없음	34.8%
	더 느려짐	4.7%
국내 소득 양극화 정도가	더 심화됐음	90.9%
	변화 없음	9.1%
	더 완화됐음	0.0%

☞ 국내 4차산업혁명·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‘더 빨라졌음’ (62.2%), 선진국과 우리 기업간 기술격차가 ‘변화 없음’ (51.1%), 중국 등 신흥국의 기술 추격속도가 ‘더 빨라졌음’ (60.5%), 국내 소득 양극화 정도가 ‘더 심화됐음’(90.9%)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.

④ 작년 한해 실적(영업이익)이 재작년(코로나 이전)에 비해 어떻게 변했습니까?

	백분율
늘었음	6.5%
줄었음	65.2%
비슷한 수준	28.3%
합 계	100%

☞ ‘줄었음’이 65.2%, ‘비슷한 수준’이 28.3%, ‘늘었음’이 6.5% 순으로 조사되었다.

5 (4)에서 '줄었음'으로 응답한 기업 대상) 감소폭이 어느 정도였습니까?

	감소폭 평균
기계·금속	-18.7%
섬유	-33.6%
화학·플라스틱	-35.0%
기타	-26.2%
전 제조업 평균	-28.4%

☞ '화학·플라스틱'이 -35.0%, '섬유'가 -33.6%, '기타'가 -26.2%, '기계·금속'이 -18.7% 순으로 조사되었다.

6 (4)에서 '줄었음'으로 응답한 기업 대상) 코로나 재유행이 없음을 가정할 때,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실적이 회복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?

	백분율
상반기 중	0.0%
올해 안	21.9%
내년 이후에나 가능	78.1%
합 계	100%

☞ '내년 이후에나 가능'이 78.1%, '올해 안'이 21.9%, '상반기 중'이 0% 순으로 조사되었다.